

일본 국제수산 월간동향

2024. 07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

목 차

1. 남방참다랑어 심각한 어가 폭락3
2. 신선한 고등어 동해(일본해) 중심으로 어획량 80% 증가4
3. 중국 영향력 미치는 도서국가와 신뢰 강화5

□ 일본 원양어선 75척 '대부분 적자'

- 남방참다랑어 산지가격이 급락하면서 원양 참치 연승선 선주들이 적자 조업을 할 수밖에 없어 어업의 존립이 위기에 처해 있음.
- 남방참다랑어는 도요스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, 참다랑어나 눈다랑어 등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시장 관계자들은 그 가치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함.
- 2022년도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남방참다랑어 어획가격이 상승했지만, 2023년도는 유통량 회복으로 가격이 약 40% 하락함.
- 남방참다랑어를 어획하는 어선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, 유류와 자재 가격 상승도 겹쳐 어업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임.

※ 출처: 미나토신문¹⁾

1)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4037>('24년 07월 22일 검색)

□ 6월 오키나와의 중권 주체인 '고치라 어항 정보부'

- 6월의 참고등어 어획량은 전년 동월 대비 80% 증가한 15,856톤, 고등어류 전체로는 21% 증가한 26,730톤으로 모두 202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음.
- 사카미나토에서는 오키 해협에서 중형 권현망으로 고등어가 많이 어획되었고, 규슈의 대마도 해역에서도 고등어 어획이 활발했음.
- 참고등어 어획량은 마쿠라사키와 마쓰우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전년 동월 대비 2% 증가한 1,630톤에 그쳤음.
- 7월 전국 주요 거점항에서의 고등어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% 증가했으며, 어획량 증가 요인은 불분명하지만 풍어가 예상되고 있음.

※ 출처: 미나토신문²⁾

2) 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4558>(*24년 07월 22일 검색)

□ 16일부터 6년 만에 태평양-섬 정상회의 대면 개최

- 일본 정부는 16~18일 도쿄에서 '제10회 태평양-섬 정상회의'를 개최해 기후변화와 해양 분야를 중심으로 공통 과제를 협의하고 경제개발과 인적 교류 등에서 협력을 확인함.
- 태평양 도서국-지역은 일본의 해로와 원양어업에 중요한 지역으로, 일본 정부는 1997년부터 3년마다 섬 서밋을 개최해 왔음.
- 최근 중국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, 2022년에는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해 중국군의 주둔이 가능해졌음.
- 이번 정상회의는 6년 만의 대면 개최로,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모든 정상과 개별 회담을 갖고 만찬을 베푸는 등 신뢰 관계를 강화할 예정임.

※ 출처: 산케이 신문³⁾

3) <https://news.yahoo.co.jp/articles/025f349eef89ebc52ff774eaddde3e33e62a7d7a> ('24년 07월 22일 검색)